

스

포트라이트를 받는 기분은 어떠할까. 등단(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 이후 지금까지 문단과 독자의 관심을 독차지한 소설가 윤성희(32) 씨는 그것을 두고 “럭키”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주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책상에 앉는다, 그리고 쓴다”라고 작가적 자세의 모범(?)을 부연하지만, 신작 소설집 《거기, 당신?》을 정독한다면, 그것이 그만의 ‘능청’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전작 《레고로 만든 집》과 신작 《거기, 당신?》에 수록된 대개의 작품이 주요 문학상의 후보에 등재된 만만찮은 이력을 그는 갖고 있기도 하다.

“먼저의 인물보다 덜 폐쇄적인 인물을 그려보고자 했어요. 전작 《레고로 만든 집》에선 소통 없는 개인의 상처를 담담하게 짚어 봤었죠. 거기에 수록된 단편 〈계단〉에서 연립 1층과 5층에 사는 두 남자가 집을 맞바꾸는데, 형과 아우로 부르며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관계를 맺는 이번 소설집의 출발점이 된 작품이지요. 타인과 타인이 엮이어 만드는 색다른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윤성희

놀이하며 치유받는 우리의 평범 씨들, 유쾌한 능청, 그러나 쓸쓸한 뒷맛
《거기, 당신?》엔 소설가 윤성희



이편과 저편에 두 남자만을 태운 바이킹이 작동을 시작하는 <계단>의 끝부분은 인상적이다. 서로가 가진 상처를 '별난 놀이'를 통해 치유받고 있는 것. 이번 소설집 《거기, 당신?》에서 그 같은 이미지는 다채롭게 변주된다. <잘 가, 또 보자>에서 친구 W를 잃은 그녀들은 정신병원 잔디밭에 나란히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한다. “미친년. 재수 없게 죽고 지랄이야”는 팔굽혀펴기의 구령이다. <유탄 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의 그네들은 삼 두 자루와 곡괭이 두 자루를 트럭에 싣고 보물을 찾아 거침없이 떠난다. 떠나는 행위가 중요할 뿐, 숨겨진 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거기, 당신?>의 그는 자전거 뒷자리에 그녀를 태우고 내달린다. 앞서 달리는 트럭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옛집 앞에 멈춰 은밀하게 방화를 모의하기도 한다.

치유를 위한 '별난 놀이'도 주목되지만,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부분은 인물의 캐릭터가 독특하게 평범하다는 데 있다. 시청 공무원, 자전거 대여점 주인, 도서관 사서, 중국집 주방 보조, 화장실 청소부 등의 직업을 인물들은 갖고 있다. <유탄 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에서 '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W는 존재감이 미약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소설 속에 들여놓기에 매력 있을까 싶은, 길을 건다 무심히 지나쳐도 좋을 그런 인물들이다.

“특별한 인물을 밀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범한 인물을 밝혀보는 것도 소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고독한 사람을 고독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존재는 희미하지만 그들에게도 절박한 뭔가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 뭔가를 밝혀보기 위해 인물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고가 보기도 했어요. 미친 듯이 손바닥으로 닫힌 유리창을 두드리다 상처를 입는 인물, 제 상처를 감당하지 못해 타인을 가해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표출일 뿐이지요. 캐릭터가 불분명해 쓰기 힘들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고정된 부분이 없어 오히려 편합니다.”

《거기, 당신?》에 흐르는 구조적 정서는 '고독'이다. 윤씨는 소설집 속 단편제목에 빌어 '고독의 의무'를 말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고독한 인물들이 들고나는 가운데 죽음도 빈번하고 광기도 번뜩이지만, 소설은 시종일관 유쾌하다.

<거기, 당신?>에서 채육시간이면 달리기만 하는 그는 “달리면 뭐가 좋아?”라는 L의 물음에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길>에서 '나'는 “이 도시는 신호등이 너무 많았다. K가 나를 떠난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그의 회사에서 우리 집 사이에는 신호등이 무려 36개 있었다”고 능청스레 말하기도 한다. <고독의 의무>에서 '만우절이 생일인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은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했던 부모님을 위해 만우절을 생일로 정했다고 농담 같은 고백을 한다.

“생로병사를 농담처럼 가볍게 지나쳤으면 합니다. 위악적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실제 소설 속의 능청스런 인물들은 많은 부분 저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로부터 '소설 속 인

물의 행동을 내가 따라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윤씨는 보통의 사람들과 슬픔과 웃음의 포인트가 틀리다고 한다.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지 않고, 남들이 무심할 때 울기도 한다. 그래도 소설 속에 의미를 둔 부분이 읽히지 않을 땐 속상하기도 하다. 지인이 <그 남자의 책 198쪽>을 로맨틱 영화로 각색해 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는데, 사실 굉장히 쓸쓸한 작품. 자기 인생을 위로한답시고 '태어나서 우산 한번 잊어버린 적 없다'고 위안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능청으로 읽힌다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쓸쓸한 날 읽기 좋은 소설이지만, 책을 덮고 난 뒤 “이게 뭐야, 더 쓸쓸하잖아”란 토로까지 책임질 순 없다. 윤성희 소설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평범 씨'들의 고독을 유쾌하게, 그리고 능청스레 밝혀 눈물을 흘리며 한참 웃었더니, 쪽 뺨 눈물이 종내 쓸쓸함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

윤성희가 앞서 밝힌 '럭키'란 이름이면 이런 것이다. 들여다보아주지 않는 평범 씨들의 번민을 사려 깊게 짚어내는 그만의 눈, 그들의 고독을 능청 혹은 농담으로 위무하는 그만의 화법,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이가 되레 먼저 울게 되는 감정의 전이…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찰이 이만큼 깊을진대, 문단과 독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딱히 무얼 써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쌓여 소설이 되니까요. 제 생각이 변하는 것에 따라 소설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할 뿐이죠.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써서 많은 걸 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베길 만큼 제 삶이 깊지 못해 소설을 쓰며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공포스러운 인물이 나오지 않는 공포소설, 달콤한 문장이 한 줄도 없는 러브스토리 말이죠.”

공포스러운 인물이 나오지 않는 공포소설, 달콤한 문장이 한 줄도 없는 러브스토리라니. 여전한 엉뚱함, 그리고 능청스러움! 그 어떤 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와의 관계가 지속될 때 알아챌 수 있는 무엇. “거기, 당신?” 하고 그가 우리를 호명해 '별난 놀이'라도 한판 벌린다면 좋겠지만, 호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윤성희 식으로 아무려나, 능청스럽게 넘겨버리면 또 그뿐인 것이다. 끈덕지게 쓸쓸함이 뒤를 따라붙는다 해도. **유부**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거기, 당신?》윤성희 지음 | 문학동네